

② 휴암 백인걸 선생 탄생 52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움

休菴 白仁傑의 疏笥類 政論散文 研究

· 이종호 | 안동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양주문화원이 ‘휴암(休菴) 백인걸(白仁傑) 선생 탄생 520주년’을 기념해 양주시와 수원백씨 문경공 휴암종중 후원으로 2017년 9월 1일 양주회암사지박물관에서 개최한 학술심포지움 강연을 정리한다. 학술심포지움에서는 ▲명종·선조조의 정국과 휴암의 역할 ▲휴암 백인걸의 소차류 정론산문 연구 ▲휴암 백인걸의 철학사상 등의 강연이 있었다.

목 차

1. 머리말

2. 휴암 정론산문의 경계와 내용적 특징

- (1) 獨啓를 통한 孤忠正氣의 표출: <獻納時論密旨啓>
- (2) 國論과 士習, 眞儒의 追獎: <請靜庵趙先生從祀文廟筭>
- (3) 正心과 學政一致, 그리고 主敬의 강조: <勉聖學筭>
- (4) 便國과 利民을 위한 直言: <論時事兼請靜庵先生從祀文廟疏>
- (5) 文廟從祀와 靜菴學의 貢獻: <請靜庵先生從祀文廟疏>
- (6) 靜菴의 文廟從祀와 書院賜額: <辭右參贊疏>
- (7) 東西의 調和와 鎮定, 靜菴의 學問과 業績: <因求言陳時弊兼陳時務疏>
- (8) 疏章의 代理潤色은 無罪: <因栗谷被劾自明疏略>

3. 맺음말

1. 머리말

우리 학계에서는 남아있는 자료가 부족함에도¹⁾ 불구하고, 그 동안 여러 가지 관점에서 휴암 백인걸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새로운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한 새로운 논의의 전개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²⁾ 참고하면서, 《休庵先生實記》 권1에 수록된 ‘疏啓’ 8편(啓 1편, 劄 2편, 疏 5편)에³⁾ 주목하여 휴암의 사상을 재음미해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疏啓’를 학계의 관행을 따라 편의상 ‘疏劄類 政論散文’이라 부르기로 한다. ‘산문’이란⁵⁾ 한문학에서 문장을 2분할 때, 詩나 賦와 같은 韻文에 상대해서 부르는 명칭이고, ‘政論 산문’이란 산문체 문장 가운데서 담긴 내용의 성격이 다분히 ‘정치적 논의를 위주로 하는 것’에 국한하여 사용하는 용어이다. 필자는 휴암을 조선 중기를 빛낸 정치인 가운데 한 분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선비의 본무가 궁극적으로는 ‘佐君澤民’ 하는데 있다고 할진

-
- 1) 휴암의 문집이 전하지 않는 상태에서 휴암에 대한 자료는 1831년 白東野가 엮어서 1876년 任憲晦의 서문을 받아 간행한 《休庵先生實記》 1-2(石版本, 4卷 2冊)가 거의 유일하다. 그밖에 《朝鮮王朝實錄》이나 野史에 단편적으로 휴암의 생애를 엿볼 수 있는 자료들이 전한다.
 - 2) 1997년 休庵思想研究論叢編輯委員會에서 간행한 《休庵 白仁傑의 生涯와 思想》에 기존의 연구성과가 잘 갈무리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말미에 부록된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란다.
 - 3) 《休庵先生實記》에 수록된 8편 疏啓의 명칭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獻納時論密旨啓〉, ② 〈請靜庵趙先生從祀文廟劄〉, ③ 〈勉聖學劄〉, ④ 〈論時事兼請靜庵先生從祀文廟疏〉, ⑤ 〈請靜庵先生從祀文廟疏〉, ⑥ 〈辭右參贊疏〉, ⑦ 〈因求言陳時弊兼陳時務疏〉, ⑧ 〈因栗谷被劾自明疏略〉이다.
 - 4) 疏劄類를 奏疏類로 불러도 문제될 것은 없다.
 - 5) 한문 문장의 스타일에 따른 분류는 시대에 따라 모습을 달리해 왔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六朝시대 梁 昭明太子 蕭統이 편찬한 《文選》에서는 賦, 詩, 騷, 七, 詔, 冊, 令, 教, 策, 表, 上書, 啓, 彈事, 箋, 奏記, 書, 移, 檄, 難, 對問, 設論, 辭, 序, 頌, 贊, 符命, 史論, 史述贊, 論, 連珠, 箴, 銘, 誄, 哀, 碑文, 墓志, 行狀, 吊文, 祭文 등 39가지로 분류해 놓았는데, 梁 劉勰의 《文心雕龍》에서는 ‘有韻之文’(明詩, 樂府, 詮賦, 頌讚, 祝盟, 銘箴, 誄碑, 哀吊, 雜文, 諧隱)이니 ‘無韻之筆’(史傳, 諸子, 論說, 詔策, 檄移, 封禪, 章表, 奏啓, 議對, 書記)이니 해서, 문학양식을 모두 五經에 조응해서 다루었기에, 《문선》의 분류와 조금 차이가 있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큰 구별이 없다. 그러다가 宋代 黃堅의 《古文眞寶》 後集에 오면, 17가지로 나누었고, 근세의 분류로서 清代 姚鼐의 《古文辭類纂》에서는 論辯, 序跋, 奏議, 書說, 贈序, 詔令, 傳狀, 碑志, 雜記, 箴銘, 頌讚, 辭賦, 哀祭 등 13가지로 나누어 놓았는데, 비교적 적절한 정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中國文章論》, 8쪽(日 佐藤一郎 著, 趙善嘉 中譯, 上海古籍出版社, 1996)을 참조.
-

대, 司馬試, 文科를 통과하여 出仕한 뒤 정통관료의 길을 걸어간 모든 이들의 말과 행동은 결과적으로 정치적인 색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휴암도 16세기 당대를 살아간 어느 누구보다도 정치적 浮沈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소차류 산문은 바로 그러한 휴암의 정치적 고뇌 내지 憂患意識을 잘 드러내주기에 휴암의 인간상을 명징하게 파악하는데 빠뜨릴 수 없는 자료이다.

明나라 徐師曾은 《文體明辯》에서, 疏란 ‘布’ (펼치다)란 뜻이고, 劄란 ‘刺’ (꾸짖다)란 뜻이며, 啓란 ‘開’ (열다)는 뜻이라고 했다. 따라서 啓, 疏나 劄는 신하가 임금(제왕)에게 일정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글쓰기 방식임을⁷⁾ 알 수 있다. 魏文帝 曹丕는 《典論論文》에서 “奏議宜雅(주의는 雅正해야한다)”라고 했다. 주의 즉 소차류 산문은 사적인 개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방식이 아니다. 또한 관청에서 요구하는 일반적인 공문과도 성격이 다르다. 신하가 절대권력자인 제왕에게 자신의 견해를 진술하거나 입장을 설명할 때, 엄격한 절제와 예절을 지켜야 한다. 주제(뜻)를 설정하는 ‘立意’와 내용을 안내하고 구성하는 ‘措詞’ 모두 雅正하고 規範에 맞아야 한다. 陸機도 《文賦》에서 “奏平徹以閑雅”라고 했다. 즉 奏議류 산문은 諸葛亮의 〈出師表〉나 李密의 〈陳情表〉, 賈誼의 〈論積貯疏〉, 그리고 魏徵의 〈諫太宗十思疏〉 등과 같이, 반드시

6) 明 徐師曾, 《文體明辯》卷26, 奏疏(上), “一曰奏, 奏者進也, 二曰疏, 疏者布也, ……; 三曰對, 四曰啓, 啓者開也, 五曰狀, 狀者陳也, ……; 六曰劄子, 劄者刺也, 七曰封事, 八曰彈事.”

7) 明 徐師曾, 《文體明辯》卷26, 奏疏(上), “奏疏者, 君臣論諫之總名也.” ‘소차류 산문’은 姚鼐가 《古文辭類纂》에서 분류한 ‘奏議’에 해당한다. 주의는 조정에서 신하가 군왕에게 정사에 대해 논술하는 공문이다. 주의류 산문에 속하는 글의 종류는 매우 많다. 춘추시대에는 諸侯가 天子를 뵈고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거나 제왕의 미덕을 선양하거나 위임한 일을 받아들이거나 이미 모두 하나의 엄격한 程式, 辭令이 형성되어 있었다. 다만 대부분 구어를 이용하여 대답했기에 굳이 문자로 나타낼 필요는 없었다. 그러다가 전국시대에 오게 되면 公卿들이 제왕에게 政事를 진술하여 문자로 표현했는데 이를 ‘上書’라 했다. 秦나라가 전국을 통일한 뒤 제도를 정비하면서 ‘書’를 ‘奏’라고 불렀다. 漢 대에 예의를 다시 손보면서, ‘上書’를 네 가지로 나누었으니 章, 奏, 表, 議가 그것이다. 章을 가지고 謝恩하고, 奏를 가지고 政事를 按覈하고, 表를 가지고 요구하는 바를 진술하고, 議를 가지고 자기와 다른 의견을 辨駁하는 것이다. 漢나라 이후에는 또한 疏, 書, 封事, 札子, 彈事, 牋, 對策 등 명칭이 생겨났다, 《古代漢語三百題》, 520쪽~521쪽 (陳必祥 主編, 上海古籍出版社, 1993)을 참조.

주제의 전개가 平正透徹⁸⁾해야 하고 措詞는 典雅하여 정론산문으로서의 體式을 제대로 언어야 한다는 말이다.

휴암의 정론산문도 앞서 말한 소차류 산문이 지켜야 할 엄격한 글쓰기 원칙을 그대로 실천했을 것으로 보인다. 본론에서는 휴암의 정론산문이 어떠한 규모와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지 알아보고, 그것이 어떻게 그의 정치적 입장이나 사상과 연결되는지에 대해 보다 심화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한다.

2. 휴암 정론산문의 경계와 내용적 특징

《휴암선생실기》에 수록된 소차류 정론산문 8편 가운데, 온전한 형태로 남아있는 것은 거의 없다. 다시 말해서 시작(서두), 중간(본론), 끝(말미)의 문장구성에서 중간 부분은 대체로 남아 있지만 시작이나 말미 부분이 온전하게 갖추어진 글은 1~2편에 불과하다. 아마도 원본이 제대로 후대에 전해지지 못한 탓으로 보인다, 〈행장〉이나 《실록》에서 온전한 형태의 소차류 산문을 기대할 수는 없다. 문집 혹은 〈행장〉이나 《실록》은 분량의 제약으로 중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수록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서두나 말미 부분은 덜어내고 신지 않는다. 옛 분들은 소차와 같은 글을 쓸 때, 반드시 그 부분(원본 : 초고본)을 남겨두어 훗날 문집편찬의 자료로 사용했다. 즉 승정원에 올린 정보와 집에 갈무리된 부분이 공존했던 것이다. 정보는 추후에 역사를 편찬할 때, 時政記의 주요 사료로 활용되었다,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간혹 《승정원일기》에 온전한 형태의 소차류 산문이 수록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실록》은 축약해서 요점만 수록한다, 우계가 찬술한 휴암 〈행장〉은 《선조실록》(수정실록 포함)이 편찬되기 이전에 집필된 글이다. 오히려 《실록》을 편찬할 때, 우계가 찬술한 〈행장〉이 사료로 활용되었을 것이다. 《실기》에서는 대체로 이 〈행장〉을 기초로 부분적으로 보완하는데 힘쓴 흔적이 엿보인다.

이글에서는 우선 《실기》, 〈행장〉, 《실록》에 수록된 원문을 도표를 통해 비교한 뒤 그 내용적 특징을 개괄하도록 한다.

8) 앞의 《古代漢語三百題》를 참조.

(1) 獨啓를 통한 孤忠正氣의 表출 : <獻納時論密旨啓>

書名 段落	休庵先生實記	成渾撰 行狀	朝鮮王朝實錄	備考
1	<p>“自上爲政，雖微細之事，當光明正大，使國人皆知之可也。今者尹任事，當議于院相而處之，而內降密旨于尹元衡，使數三宰相直啓，命招卿相，以定其罪。定罪則是，而其所以罪之事，大失事體。自上不降于院相，而降于尹元衡，後日必有奸細之徒，因此端而得志也。況罪人，必正名定罪，然後國人皆曰：‘某人以某事被某罪也。’而尹任等三人之罪，只曰遠竄罷職遞差，而無傳旨辭緣，亦非國家法典之常也。</p>	<p>“國家事，當出於光明正大可也。今內降密旨于尹元衡，罪尹任等三人，而不廷議，不列罪名，外戚奉密旨行事，何以示後世，且將使姦臣開邪逕，暗地構扇以陷大臣，其流之禍，有不可勝言者。</p>	<p>“自上政事，雖微細之事，當光明正大，使國人皆知之可也。今者尹任事，當議于院相而處之，而內降密旨于尹元衡，使數三宰相直啓，命招卿相，以定其罪。定罪則是，而其所以罪之之事，大失事體。自上不降于院相，而降于尹元衡，必有後日奸細之徒，因此端而得志也。況罪人，必正名定罪，然後國人皆曰：‘某人以某事被某罪也。’而尹任等三人之罪，只曰遠竄罷職遞差，而無傳旨辭緣，亦非國家典法之常也。</p>	<p><실록> 答曰：“禍迫於宗社，故不得已爲密旨，而與朝廷議定也。此啓意，當與朝廷，更議處之。”</p>
2	<p>尹元衡受密旨之初，當防啓曰：‘如此秘密之事，使他人處之，恐有後弊，況以至親承順爲之，則弊將難救云。’則上無處事之失，下無貽弊之患也，而遽自相通于宰相，使國家之法，不得出於光明正大，至爲非矣，請推。</p>	<p>尹元衡承順內旨，使國家事不得出於光明正大。</p>	<p>尹元衡以至親，受旨之初，當防啓曰：‘如此秘密之事，使他人處之，恐有後弊，況以至親承順爲之，則弊將難救’則上無處事之失，下無貽弊之患，而遽自相通于宰相，使國家之法，不得出於光明正大，至爲非矣，請推。</p>	
3	<p>大司憲閔齊仁大司諫金光準，以尹任論啓事，議于臣等。臣等以爲：‘國有大臣六卿，而此事不出於此，而乃出於密旨，不正甚矣。且開後日奸細之徒，乘隙成謀之端也。’</p>	<p>大司憲閔齊仁聞內旨之下，伺候二三宰相之家，有同傳令軍卒。諸臺諫逡巡觀望，皆失言齋之義，請俱治罪。”</p>	<p>大司憲閔齊仁大司諫金光準，以尹任論啓事，議于臣等。臣等以爲：‘國有大臣，又有六卿，而此事不出於此，而乃出於密旨，不正甚矣。且開後日奸細之徒，乘隙成謀</p>	

書名 段落	休庵先生實記	成渾撰 行狀	朝鮮王朝實錄	備考
3	<p>以此各執其意，而齊仁光準亦以爲然，遂不論啓，此則可矣。尹元衡之事，易知可啓而不啓，亦爲非矣。況齊仁以憲府長官，聞密旨之下，奔走數三宰相之家，有同傳令軍卒，是雖出於爲上慰勞之心，而臺閣之體則掃如矣。執義宋希奎司諫朴光佑掌令鄭希登李彥忱持平金麟閔起文正言金鸞祥柳希春等，與臣所啓之意，終始相同，而不卽決啓，徒煩辭避，未免逡巡之迹，非所以盡言責者，亦爲非矣。請竝推。”</p>		<p>之端也.’ 以此各執其意，而閱齊仁金光準亦以爲然，遂不論啓，此則可矣。尹元衡之失，面對可啓而不啓，亦爲非矣。況閱齊仁以憲府長官，聞密旨之事，奔走於宰相之家，有同傳令軍卒，是雖出於爲上慰勞之心，而臺諫之體則掃如矣。執義宋希奎司諫朴光佑掌令鄭希登</p> <p>李彥忱持平金麟閔起文正言金鸞祥柳希春，與臣所啓之意，終始相同，而不卽決啓，徒煩辭避，未免逡巡之迹，非所以盡其言責者，亦爲非矣。請竝遞。”</p>	

1545년(을사) 8월 23일, 사간원 헌납(정5품)으로 있을 때, 문정왕후의 밀지를 윤원형이 받아 부당하게 처리한 사태에 대해 간쟁한 계문이다. <행장>은 매우 소략하게 기술한 데 비해, 《실기》와 《실록》은 휴암의 계문을 매우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비록 시작과 말미 부분이 생략되어 있지만 중요한 대목의 전후맥락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게 잘 전개되어 있다. 《명종실록》은 선조대에 활동한 홍섭(洪澗) 등 사림과 출신들에 의해 1571년 편찬되었기에 기술이 비교적 공정하다고 평가된다. 물론 편찬 당시에 휴암은 생존해 있었다. 편찬자들 중 대부분이 그와 교분이 있던 인물이었으므로 부당하게 그의 언론활동을 왜곡시키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실기》와 《실록》을 비교해 보면, 부분적인 출입은 보이지만 내용은 크게 차이가 없다.

우리 역사에서는 1545년(명종 즉위), 왕위 계승을 둘러싼 외척간의 갈등에서 소윤이 대운을 숙청하면서 10여 명의 사림이 피화되어 사형이나 유배에 처해진 사건을 ‘을사사화’라고 한다. 이때 윤원형 일파는 윤임·유관·유인숙 등을 반역음모죄로 유배시켰다가 사사(賜死)시켰다. 그런데 그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휴암은 생각했다. 문정왕후의 밀지에 따라 밀실에서 윤원형을 비롯한 소수의 권력층근에 의해 전단됨으로써 공식 의결

라인에 있던 정승과 관서들이 배제된 것은 매우 불공정하다고 본 것이다.

그를 격분시킨 것은 당시 언로를 책임진 이들 중 아무도 나서서 권력핵심부의 잘못된 처사를 따지려 들지 않는 현실이었다. 한심한 현실의 벽을 돌파하기 위해 휴암은 “내 장차 정쟁(廷爭)하겠다.”고 말했다. ‘정쟁’이란 조정에 나아가 임금의 면전에서 문제가 있는 정사와 관련해서 잘 잘못을 따지는 행위이다. 국가의 대사는 반드시 공명정대하게 처리해야 후유증이 없게 된다는 신념을 지닌 그였다. 조정에서 정식 절차를 밟아 대사를 논의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공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정왕후와 윤원형은 거꾸로 밀실 정치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으니, 그 후과로 장차 생겨나게 될 후유증이 걱정되었다.

그래서 문정왕후의 밀지를 따른 윤원형을 비롯하여 이러한 사태발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수수방관한 대사헌 민제인 등 언로선상에 있던 모든 이들의 죄상을 물어 처벌해야 한다고 홀로 주장했던 것이다.

휴암이 조정에서 독계하러 갈 때, 모친과 처에게 ‘내가 지금 가면 필시 의금부에 하옥 되어 유배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니 놀라지 말라.’고 하면서, 울면서 말리는 여인들의 손을 뿌리쳤다고 한다.⁹⁾ 매우 비장한 선택의 순간이어서 감동적이기까지 하다. 또한 사신(史臣)도 “백인걸은 분발하여 자기 자신의 안전을 돌보지 않고 낮빛을 바로하고 직언을 하였으니, 비록 그의 말이 조금도 시행되지 않고 곧바로 죄를 받아 배척되기는 하였으나, 여러 간신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올바른 사람들의 기상을 씩씩하게 하기에 넉넉했으니 우주 간에 이러한 행동이 없어서는 안 된다. 옛날에 남헌(南軒) 장식(張栻)이 호전(胡銓)의 봉사(封事)를 일컬어 일월과 광명(光明)을 다룰 만하다고 하였는데, 신은 백인걸의 이 계문도 또한 그렇다고 하겠다.”¹⁰⁾ 라고 평했다. 이 사신의 평어는 당시 을사사화 및 그 이후 윤원형 일파로부터 크고 작은 피해를 당했던 사람들의 분노에 찬 외침과도 같았다. 때문에 언관의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체직을 요구받은 민제인(閔齊仁)이

9) 《明宗實錄》 권1, 명종 즉위년 8월 23일 계축, “時仁傑承命召詣闕, 將欲啓此, 告其母及妻曰, 吾今往, 必有下禁府竄逐之事, 毋爲驚愕. 母妻泣止, 不聽.”

10) 《明宗實錄》 권1, 명종 즉위년 8월 23일 계축, “史臣曰, 仁傑奮不顧身, 正色直言, 雖其言不少施, 而旋被罷斥, 亦足以捩群姦之魄, 壯正人之氣, 宇宙間不可無此一舉, 昔張南軒謂胡銓封事, 可與日月爭光, 臣於仁傑是啓亦云.”

나 유희춘(柳希春)과 같은 이들도, 권세와 사익을 돌보지 않은 휴암의 직간을 보면서, 죽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워했던 것이다.¹¹⁾

사신의 평어에 드러난 바와 같은 불의와 부정 앞에서 휴암이 단호하고 충직한 정론(正論)을 펼칠 수 있던 동력은 어디에서 유래한 것일까? 우계가 <행장>에서 말했듯이, “엄정한 자세로 바른말을 하여, 몸을 사리지 않고 당시 권력이 꺼리고 숨기는 것들에 대해 지적한 것을 ‘외로운 충성과 정직한 기운(孤忠正氣)’에서 연유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¹²⁾

동료들이 모두 자기 일신의 안위를 염려하여 선 듯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독계(獨啓)를 결심한다는 것은 평소 부단한 내면수양을 통해 축적한 호연한 대장부의 기상이 없었다면 어려웠을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외로운 충성과 정직한 기운(孤忠正氣)’ 기상을 이 계문을 읽으면서 거듭 느끼게 된다.¹³⁾

휴암이 죽자 송강(松江) 정철(鄭澈, 1536~1593)이 이렇게 만사를¹⁴⁾ 지어 추모하였다.

孤忠一代無雙士 외로운 충성은 한 시대 둘도 없는 선비
獻納三更獨啓人 헌납이 되어 한 밤중 홀로 아뢰던 사람
山嶽降精生此老 산악의 정기 받아 이 노인 태어났으니
歸天應復作星辰 하늘에 돌아가 다시 빛나는 별 되리라

11) 成渾의 <休菴行狀>, “其草啓辭時, 正言柳希春見公之爲, 吐舌曰, 壯哉. 翰林趙璞在旁, 聞公直氣不撓, 退而書諸策曰, 白某有漢廷汲黯之風, 閔齊仁讀至有同傳令軍卒之語, 輒曰, 白某之言, 誠確論也, 不覺嘆服羞愧以死. 嗚呼. 此豈勢利之所使然哉.”

12) 成渾의 <休菴行狀>, “立朝, 危言正色, 指斥時忌, 無所顧籍, 如乙巳之秋, 鶚立朝端, 蹈赴萬死, 抗言密旨之非, 直欲以隻手扶持世道, 表正人紀, 期以不負言責之義, 其孤忠正氣, 可以貫虹霓而摩星斗, 是以直聲振乎一時, 士論翕然歸之, 久而後愈著也.”

13) 휴암의 독계에 대해 문정왕후는 “중사(宗社)에 화가 닥쳤기 때문에 부득이 밀지를 내려 조정과 의논하여 결정한 것이다. 아뢰 뜻은 조정과 다시 의논하여 조처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 휴암의 언론을 접한 문정왕후는 대신들을 불러놓고, “(백인걸이) 정론(正論)에 가탁하여 역적들을 비호했다”고 하면서 진노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휴암은 문정왕후와 윤원형 일파의 눈엣가시가 되었고, 중간에 정순봉의 비호를 받았으나 결국 정미년(1547, 명종2) 가을 일어난 양재역(良才驛) 벽서(壁書)사건의 여파로 을사사화의 잔당을 논죄하는 과정에서 안변부(安邊府)로 유배되고 말았다.

14) 鄭澈, 《松江集》原集 卷1, 七言絕句, <白參贊(仁傑)挽詩>.

(2) 國論과 士習, 眞儒의 追獎: <請靜庵趙先生從祀文廟劄>

書名 段落	休庵先生實記	成渾撰 行狀	朝鮮王朝實錄	備考
1	臣等伏觀傳教曰, 趙光祖, 乃中廟朝被罪之人, 追贈未安, 臣等竊惑焉.			<p><행장> 戊辰正月, 拜吏曹參議. 二月, 遷司諫院大司諫. 仁順王后臨朝, 問羣臣以垂簾久近. 大臣對曰, 期月可矣. 公進曰, 嗣君不至幼冲, 女主不可以久聽國政. 仁順不悅而罷. 未幾, 遂撤簾. 公首爲上進劄子言;</p>
2	吾東方理學, 古無其人, 鄭夢周倡之於麗末, 金宏弼和之於我朝, 然宏弼窮而在下, 未能設施於世, 逮至趙光祖. 以純粹眞儒, 闡明孔孟程朱之學. 遭遇中廟, 竭忠盡誠, 欲效堯舜君民之志, 興學校, 敦教化, 使一時儒士咸知學問而興起, 四方氓庶, 莫不回心而向善, 將追唐虞三代之至治,	吾東方道學, 自鄭夢周金宏弼以來始有淵源, 逮至趙光祖, 以傑出之才, 闡明程朱之學, 循蹈規矩, 非禮不動, 大礪名節, 興起斯文, 得君致理, 脩行德政, 庶幾復見二帝三王之盛.		
3	不幸奸臣南袞沈貞李沆洪景舟等, 以鬼蜮仇善之心, 憤平日不容於公論, 潛售邪逕之狡謀, 欺君父以不測之變構成, 竟致冤死, 非但當時之士, 扼腕而痛哭, 至今朝野之間, 無不長歎而於悒, 獨宮中以姦邪蒙蔽之深, 迄今未之知耳.	而姦臣南袞沈貞等, 肆其鬼蜮, 構成貝錦, 竟致冤死, 朝野之痛, 久而彌新, 獨宮中以姦邪蒙蔽之深, 未之知耳.		
4	然天理昭昭, 未有久而不著. 中宗晚年, 收用光祖一時之輩流, 仁宗末, 命追復光祖之官爵, 公論庶幾少行, 而物情至今憤惋者, 以光祖之道德忠義, 至五十年之久, 而猶未暴白也.	中廟晚年, 收用光祖輩流之賢才, 仁廟末, 命追復光祖已褫之官爵, 公論可謂少伸, 而物情猶爲憤惋者, 以光祖之道德忠義未盡暴白故也.		

書名 段落	休庵先生實記	成渾撰 行狀	朝鮮王朝實錄	備考
5	自乙巳以後，尹元衡李芑以邪惡正，至今以爲逆類晦盲否塞之餘，得遇聖明，此正披霧覩天，公論得伸之日也。況新政之初，士林洗心拭目，咸仰清明之治，國是不可不定，士習不可不正。	當今臨御伊始，四方風動，國論不可以不定，士習不可以不正。		
6	大臣懇懇陳達，實出於輿情之悶鬱。伏願殿下，洞照羣小舞奸之情狀，追獎眞儒忠正之被誣，贈以大官美諡，因列諸從祀文廟，以明士林之趨向，以答國人之顛望，不勝幸甚。	謂宜追獎眞儒，極其褒崇，贈以高官美諡，列諸從祀文廟，則明天理淑人心，一道德同風俗，豈不足爲清時之盛舉乎。		

휴암은 1568년(무진, 선조원년) 2월 사간원 대사간에 임명된 후, 어느 날¹⁵⁾ 정암 조광조를 문묘에 종사하게 해달라는 청원을 담은 차자를 올렸다. 이 차자의 내용은 《실록》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실기》는 〈행장〉에 비해서 시작, 중간, 말미 구성이 온전하게 되어 있고 내용의 구체성도 갖추고 있다.

《실기》의 시작 부분을 보면, 선조가 등극하자 정암을 추증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났던 것 같다. 그런데 선조는 “조광조는 중종조에 죄인이 된 사람이므로 추증하는 것은 미안하다.”고 거부했다. 휴암은 선조와 생각이 달랐다. 그는 이렇게 보았다. 우리나라 이학(도학)은 려말 포은 정몽주가 창도하고 그에 화답하여 조선에서 한훤당 김굉필이 나왔지만, 한훤당은 벼슬을 하지 않아 세상에 도학을 펼칠 수 없었다. 그 뒤에 정암 조광조는 순수한 진유(眞儒)로서 공맹과 정주의 유학을 천명하였고, 중종의 지우를 받아 충과 성

15) 戊辰(1568년) 10월에 올린 것으로 나와 있는 자료도 있다.

을 다해 요순과 같은 태평성대를 이루고자 하는 뜻을 실천하고자 하여 학교를 일으키고 교화를 도탑게 하였다. 그리하여 한 시대의 선비들이 죄다 학문을 알아 흥기하자 사방의 일반 백성들도 마음을 돌려 착하게 살려고 노력함으로써 장차 요순삼대의 지극한 정치를 이룩하려는 듯했다. 그러다가 불행하게도 못된 남곤, 심정, 홍경주 등이 꾸민 뜻밖의 술수에 걸려들어 원통하게 죽게 되었다. 저들의 거짓된 음모가 서서히 드러나자 정암의 억울함도 차차 밝혀지게 되었다. 때문에 종종도 말년에 가서는 정암과 관계있는 사람들을 등용하였고 인종도 삭탈한 관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었다. 하지만 50년이 지나도록 정암의 분하고 억울한 사정이 제대로 풀리고 도덕(道德)과 충의(忠義)가 완전히 드러났다고 할 수 없다. 을사사화의 뒤 끝에 선조의 등극으로 청명(淸明)한 정치가 요구되는 시점에 국론을 안정시키고 선비들의 기풍(氣風)을 바로잡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진유(眞儒: 조광조를 가리킴)를 추장(追獎)하여 그에 대한 포송(褒崇)을 지극히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포송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높은 관직과 아름다운 시호를 내리고, 문묘에 종사하는 일이다. 그렇게 하면 ‘천리(天理)를 밝히고 인심(人心)을 선하게 하며(明天理淑人心)’, ‘도덕과 풍속을 통일시킬 수 있을 터(一道德司風俗)’이니 그것이 바로 지극한 정치가 아니겠는가? 휴암은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이 차자를 올린 이후로, 평생 휴암의 뇌리에서 한 번도 정암의 문묘종사 문제가 떠난 적이 없었다. 그리하여 국왕으로 하여금 간악한 무리들의 실체를 투철하게 파악하고 무함을 받아 죽음에 이른 충정스런 진유, 정암의 명예를 뒤늦게나마 회복시키도록 하는 일을 만년의 사명으로 생각했다. 이 차자에서 휴암은 자기의 스승이기 때문에 정암을 추송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보다 큰 시각으로 국시를 안정시키고 사습을 바로잡기 위한 최선의 상징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정암의 문묘종사라고 했다.¹⁶⁾

16) 휴암은 정암의 문묘종사를 청하는 차자를 올리기 전, 어린 선조를 대신하여 수렴청정하던 仁順王后(명종의 비) 심씨에게 가급적 빠른 기간 안에 국정에서 손을 뗄 것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여 주위를 놀라게 했다. 물론 인순왕후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었다. 그의 발언 때문이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인순왕후는 얼마 지나 지 않아서 수렴청정을 그만두었다. 이는 앞서 살핀 을사사화 시 발생한 문정왕후의 밀지사건을 비판한 경우와 호응되는 국면으로 공공성을 중시하는 휴암의 직언정신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예라고 하겠다.

(3) 正心과 學政의 一致, 그리고 主敬공부: <勉聖學筭>

書名 段落	休庵先生實記	成渾撰 行狀	朝鮮王朝實錄	備考
1	<p>伏觀聖教有曰, 守令之貪與不貪, 在於朝廷之清與不清. 此誠端本清源之至論, 惟此一言, 可以興邦, 實我朝鮮億萬年無疆之福也. 伏讀再拜不勝感激,</p>			<p><행장>又進筭曰; <행장>上答曰, 陳戒之辭, 其敢忘諸, 當置座右以自警焉.</p>
2	<p>臣等竊嘗思之, 朝廷之清與不清, 在殿下一心之正與不正耳. 夫人主之心不正, 則天下之事無一得由於正, 是故, 聖人之治天下, 未嘗不以正此心爲大本, 書傳(曰)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者, 堯舜所以相傳之心法也. 殿下體堯舜精一之道, 心得而守之, 知風行草偃之理, 躬行以率之, 務節儉, 則朝廷之臣於斯取, 則而奢侈之心自戢, 戒逸欲, 則朝廷之臣於斯取, 則而縱恣之習自止, 以至一事一物之接, 一言一動之除, 無不極其義理之當然, 以端其本, 以清其源, 則大小臣僚, 孰不丕應僉志而精白一心哉. 然則朝廷自爾清明, 而守令之貪非所憂也. 伏願殿下留神焉.</p>	<p>“人主一心, 朝廷之本也. 君心正則朝廷莫不一於正矣. 是以古之聖王, 必先正厥心以立其本, 所謂精一執中, 卽其學也, 而堯舜以來, 帝王相傳之心法也. 誠使殿下體精一之道, 皇建有極, 則表端影正, 羣下取則, 莫不精白一心, 丕應僉志矣.</p>		

書名 段落	休庵先生實記	成渾撰 行狀	朝鮮王朝實錄	備考
3	<p>聖教有曰，子生長閭閻，不知學問，至於獨斷，深恐事多失誤，此大禹克艱厥后之心也。大抵人君生長九重之內，不知稼穡之艱難，不聞民間之疾苦，生長九重，非帝王之福，而生長閭閻，實帝王之幸也。高宗久勞于外祖田舊爲小人作，其卽位皆爲賢聖之君，然則殿下之生於閭閻，乃所以作聖之本，而大有爲之基也。事在勉強而已。伏願殿下留神焉。</p>	<p>聖教有曰，子生長閭閻，不知學問，此大禹克艱之心也。商王舊勞於外，作其卽位，知小人之依而天下歸仁。殿下之生長閭閻，乃作聖之基也。</p>		
4	<p>聖教有曰，萬幾之暇，學不專一，此亦大禹惜寸陰之盛心也。夫帝王之學，非如儒者之窮經而有待也。南面聽治，發政作事，何莫非爲學哉。蓋學與政事異而理同，誠能日御經筵，講明性理之奧，躬攬庶政，運用道義之妙，當政而驗其學，爲學而資其政，則學與政相爲終始而交相盡矣。何患乎學不專一乎。伏願殿下留神焉。</p>	<p>誠能終始典學，遜志時敏，而施諸有政，莫非體驗推行之寶，則政與學相成，心與理爲一，而不患學之不專矣。</p>		
5	<p>傳教于大臣有曰，卿等益勉協輔，此亦成王佛時仔肩之盛心也。夫大臣協輔必待人君敬信之如何。頃者，殿下遣祭閔箕之日，欲停經筵，此實敬大</p>			

書名 段落	休庵先生實記	成渾撰 行狀	朝鮮王朝實錄	備考
5	臣之盛心也. 其時, 政院雖未能將順而導之, 願殿下無忘此心, 其於大臣致敬盡禮, 任之專信之篤, 言聽計從, 則大臣亦必竭忠盡誠, 其所以輔理承化者, 將無所不用其極矣.			
6	聖教有曰, 夙夜憂懼, 此憂懼二字, 卽所謂敬也, 而聖學之所以成始成終者也. 殿下宜服膺而勿失, 念之在茲, 釋之在茲, 立則見其參於前, 在輿則見其倚於衡, 未接物時, 儼然若思, 臨政事時, 如承大祭, 以至於悠久而不息, 則殿下之心, 自爾而正, 殿下前後下教數事, 將畢舉而有餘裕矣. 中庸所謂篤恭而天下平, 正謂此也. 伏願殿下留神焉.	聖教有曰, 夙夜憂懼. 此憂懼二字, 卽所謂敬也, 而聖學之所以成始成終者也. 願殿下, 念茲在茲, 動靜勿失, 參前倚衡, 持久不息, 則聖敬日躋功業自臻, 中庸所謂篤恭而天下平者, 正謂此也.”		

1568년, 앞서 살폈던 글에 이어서 올린 새로 등극한 선조에게 성학(聖學)을 권면하는 차자이다. 역시 앞에 살핀 차자와 마찬가지로 《실기》가 〈행장〉보다 온전한 형태를 보이고 있거니와 《실록》에서는 동일한 내용을 찾아 볼 수 없다. 먼저 선조가 한 말씀을 인용한 뒤 그에 대한 반론이나 논평을 이어가는 논리전개 방식이 눈에 들어온다. 이런 식의 논리전개는 일방적인 자기주장보다는 보다 설득력을 발휘할 수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새로 왕위에 오른 선조를 위해 퇴계 이황도 무진년에 이른바 〈무진육조소(戊辰六條疏)〉를 올린 바 있거니와 그 역시 세 번째로 “성학을 도탑게 하여 정치의 근본을 세우라(敦聖學, 以立治本).”¹⁷⁾고 했다. 휴암은 성학을 위해 세 가지를 선조에게 요구했다. 하나는

군주의 한 마음은 조정의 근본이니, 군주의 마음이 바르게 유지되도록 힘쓸 것, 두 번째 정사와 학문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이니 학문에 힘쓰되 배운 것을 정사에 실천하도록 힘쓸 것, 세 번째는 밤낮으로 매사를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태도가 곧 경(敬)의 실체인데, 주경(主敬) 공부를 쉬지 말아서 성학을 완성하도록 힘쓸 것 등이 그것이다.

선조는 여염집에서 성장한 것에¹⁸⁾ 대해 상당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 세자로 태어나 궁궐 내에서 성장했다면 체계적으로 제왕학을 익혔을 터인데, 주어진 조건이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늘 학문이 부족한 것을 걱정했다. 이를 간파한 휴암은 어린 선조에게 여염집에서 출생하여 성장한 것이 오히려 성학을 펼치는데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폈다. 궁궐에서 성장하면 농사의 어려움이라든지 민간의 질고 같은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여염집에서 성장하게 되면 그와 같은 현실을 소상하게 체험할 수 있어 훌륭한 군주가 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또한 휴암은 탐학(貪虐)스런 수령을 없애고 깨끗한 조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군왕 자신이 마음을 깨끗하게 갖져야 한다고 했다. 그게 바로 ‘정심(正心)’이다. 군왕이 마음을 바로 잡으면 나머지 조정 대신이나 지방 수령이 모두 절로 깨끗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논리이다.

새로 등극한 선조로서는 관료들, 특히 대신들의 든실한 보좌가 필요했다. 휴암은 이를 위해서 선조 자신이 대신들에게 경(敬)과 예(禮)를 다해서 일을 맡길 때는 적극적으로 신임하고 그들의 말이나 계책을 잘 듣고 따라준다면 대신들 역시 군왕에게 충(忠)과 성(誠)을 다할 것이니,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이러한 휴암의 논리 속에는 적극적인 충서(忠愬)의 논리가 스며들어 있다. 무엇을 상대로부터 받고자 한다면

17) 李滉, 《退溪集》卷6, 〈戊辰六條疏〉, “其三曰, 敦聖學, 以立治本.”

18) 선조는 德興大院君(昭)의 셋째 아들, 즉 중종의 손자로 어머니는 贈領議政 鄭世虎의 딸인 河東府 大夫人 鄭氏이며, 妃는 朴應順의 딸 懿仁王后, 繼妃는 金悌男의 딸 仁穆王后다. 1552년 11월 서울 仁達坊에서 출생하였다. 처음에 河城君에 봉해졌다가 명종이 後嗣가 없이 죽자 1567(명종 22)년 16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다.

먼저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마음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학의 성패가 주경(主敬)에 달려 있다는 것은 당시 성리학자들의 보편적인 인식이었다. 인간개체의 입장에서 개인의 덕성을 고양시켜 가는 내면수양, 즉 내성(內聖)을 위해 주경이 필요하다는 것이 하나의 상식이었다. 그러나 휴암은 개인의 내성이 이상정치의 실현(外王)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직시했다. 즉 《중용》에서 말한 ‘공경함을 돈독히 하면 천하가 절로 공평해진다.’는 말을 들어, 국가경영의 성패 역시 주경공부와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환기시키고 있다. 현장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실천덕목임을 말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이에 대해 선조는 “경계한 말을 내 어찌 감히 잊겠는가. 늘 좌우에 두고 스스로 경계 하겠다.”¹⁹⁾는 비답(批答)을 내렸다.

(4) 便國과 利民을 위한 直言 : <論時事兼請靜庵先生從祀文廟疏>

書名 段落	休庵先生實記	成渾撰 行狀	朝鮮王朝實錄	備考
1	伏以昊天曰，明日監在茲，作善降祥，作不善降殃，如影隨形，如響應聲。是故，因灾驚懼，改紀其政者，罔不治且興焉。玩灾因循，安於習非者，罔不亂且亡焉。恭惟；主上殿下，以聰明叡知，足以有爲之資，當亂極思治，可以有爲之時，臣鄰聳動，黎庶顛望，今四年矣，而洽不師古政多踵弊，迄今不見上應天心，下答民望。			<행장> 庚午二月，兵曹參判兼職如故。時天旱求言，公上疏略曰； <행장> 上多采用之，還給乙巳己酉籍沒貲產，賢士之在罪籍者，申雪收斂。時廷議欲削乙巳勳券，有用事者不欲曰，何必削勳，然後爲至治哉。公面責之曰，今不得削勳，則公之罪焉得免後世之譏。又對當軸大臣，責以無宰相之量。且是時朝廷頗有新舊携貳之漸。公欲調護之，時議頗不悅。

19) 成渾의 <休菴行狀>, “上答曰, 陳戒之辭, 其敢忘諸, 當置座右以自警焉.”

書名 段落	休庵先生實記	成渾撰 行狀	朝鮮王朝實錄	備考
2	<p>近日非常之災慘酷之變，疊見層出。赤地千里，種不入土，生民流散，餓(殍)相望。臣生七十餘年，而尚未見切迫之災有如今日者也。上天之仁愛，殿下必欲其驚惕震奮者，其亦至矣。罪己求言，誠意藹然，四方善策，宜乎輻輳，而側耳有日，寂無所聞，一國之人，豈盡無救時之策，豈盡無憂世之誠乎。良由不知殿下之誠與未誠，故不敢冒陳耳。</p>	<p>近日非常之災 疊見層出， 臣生七十餘年， 尙未見切迫之災有如今日者也。</p>		
3	<p>殿下曩日亦嘗求言矣。臣不敢知取某策而救某弊也。近臣之疏耳目之章，非不累達，而殿下之答，一則曰過越，二則曰過越，或斥之以訛言，或諭之以不可行，或邈然無所可否。然則，殿下之求言，應文備數而無其實也。下焉者縱有良謀高見，孰肯爲殿下抽肝擢賢，以做一場虛其而已乎。</p>	<p>臣僚之言，非不累上，而殿下之答，一則曰過越，二則曰過越。或斥之以訛言，或諭之以不可行，或邈然無所可否，然則殿下之求言，應文備數而已。</p>		
4	<p>嗟呼，今之國勢，其亦岌岌矣。溝壑之民，無粟可賑，悖倫之俗，無教可施，大臣非無憂國之念，而憚於變法，不務遠大之猷，具僚非無蘊奇之士，而恬於固位，苟避生事之譏，拱手熟視，坐而待亡，不幸而夷狄乘釁，起於南北，</p>			

書名 段落	休庵先生實記	成渾撰 行狀	朝鮮王朝實錄	備考
4	窮民弄兵，遍於四境，則雖有善者未如之何。言念及此，不勝痛哭也。			
5	今日之弊條陳而悉數之，則日亦不足矣。殿下誠欲撥亂歸治，則盍反其本矣。其本豈非殿下之一心乎。			
6	殿下當即位之初，下教曰，生於閭閻，不知學問，又教曰，萬幾之暇，學不專一，夙夜憂懼，此正學如不及猶恐失之之盛心也。又教曰，號令之發，豈能得宜生民利害，罔知攸濟，此正后克艱厥后之盛心也。臣不知；殿下至今尙存此心，而不容少懈歟。臣於其時，既以敬之一字獻焉，又以正心爲急務，此非臣言乃聖賢之遺訓也。故殿下嘉納之曰，當置諸左右而省覽焉。臣不知；殿下至今尙置左右而省覽不倦歟。			
7	大學論語孟子斯三書者，修己治人之道，罔不備載。讀此三書，而不知道，所謂雖多亦奚以爲。今殿下於此三書，既以貫穿融會矣。何不體之身心，真踐其域，使生民得蒙至治之澤乎。殿下資非不美也，欲非不寡也，權綱非不摠攬也。殿下之不治不爲			

書名 段落	休庵先生實記	成渾撰 行狀	朝鮮王朝實錄	備考
7	也，非不能也。奈之何。仁義王道，付之空言，弊政痼習，比之成憲，尙不奮發大志，以慰輿情耶。			
8	漢臣劉陶有疏曰，天災不有痛於肌膚，震食不卽損於聖體。故蔑三光之謬，輕上天之怒，此言真今日之藥石也。程子有言曰，治道亦有從本而言，亦有從事而言，從本而言，惟從格君心之非，正心以正朝廷，正朝廷以正百官，若從事而言，不救則已，若須救之，則須變，大變則大益，小變則小益，此言真今日之急務也。	昔漢臣劉陶有疏曰，天災不有痛於肌膚，震食不卽損於聖體。故蔑三光之謬，輕上天之怒，此言真今日之藥石也。		
9	伏願殿下，惕然自省，振發精明，誠心向治，然後，咨詢大臣，警勅百僚，上下相誓，痛絕舊習，挽回世道，期效三代，使大臣悉心推訪訃謨之士，相與講求治具，盡改疵政，進上貢物，量宜減損，諸色卒隸，式均苦歇，除一族切隣之弊，禁列邑無名之稅，其他可試之策，不可枚舉，苟可以便國利民者，深究其方，期於必行，則國事及今，猶可爲也，少緩數年，則無及矣。	伏願殿下，惕然自省，君臣相誓，痛洗弊習，悉心推訪，講求治道，進上貢物，量宜減損，諸色卒隸，式均苦歇，除一族切隣之弊，禁列邑無名之稅，苟可以便國利民者，期於必行，則及今猶可爲也。		

書名 段落	休庵先生實記	成渾撰 行狀	朝鮮王朝實錄	備考
10	<p>殿下有教曰，昔者于公慟哭三年旱，今日不知其幾于公慟哭乎。因命疏放滯囚，好生之德，溢於言表，瞻聆所暨，孰不感戴。第念冤有大小，政有緩急，先其小而後其大，務其緩而忽其急，則所謂不能三年之喪，而總小功之察者也。今日之冤，孰有大於乙巳己酉罪籍，而今日之政，孰有急於昭雪誣枉慰悅衆心乎。</p>	<p>殿下既命疏放滯囚，因天災而推好生之德，然今日之冤，孰有大於乙巳己酉罪籍者乎。</p>		
11	<p>伏願殿下，善推好生之心，渙發作解之音，乙巳己酉籍沒之物，悉令還給，士林之名在罪籍者，悉復職牒，夫如是，則忠魂感泣於幽冥，士類興起于（於）昭代，國是歸正，衆心可一矣。士類之興國是之正，固是急務，而褒崇先正，使後生有所師表者，亦不可少緩。</p>	<p>誠願渙發作解之音，乙巳己酉籍沒之物，悉令還給，士林之名在罪籍者，悉復職牒，夫如是則忠魂感泣於幽冥，士類興起於昭代矣。</p>		
12	<p>臣謹按；卒贈領議政趙光祖，以性理存心，以繩墨律身，以達不離道爲事業，以致君堯舜爲規模，愛君如父，竭誠盡瘁，不幸橫罹讒構，雖不得考終，其流風遺澤，沒世逾著，至今士林尊尚道德，貴王賤霸者，皆光祖之功也。</p>	<p>臣謹按；卒贈領議政文正公趙光祖，以性理存心，以繩墨律身，以達不離道爲事業，以致君堯舜爲規模，不幸橫罹讒口，不得考終。然其流風遺澤，沒世逾著，至今士林尊尚道學，貴王賤霸者，皆斯人之烈也。</p>		

書名 段落	休庵先生實記	成渾撰 行狀	朝鮮王朝實錄	備考
13	我國邈在海隅，文獻無徵，箕子以後，寥寥千載不聞儒者之作，麗末鄭夢周始倡理學，而猶未大著，我朝金宏弼遠紹其緒，為士子矜式，而未克達施，無事業可攷，惟光祖奮乎衰世，馨德夙播，譬如青天白日，有目者，莫不識其清明，聞風振起者，景仰山斗，其不闡絕學之功，優於夢周宏弼也。	其不闡絕學之功，優於鄭夢周金宏弼遠矣。		
14	伏願殿下，力扶道脈，追念賢臣，使得從祀文廟，則多士悅服作成可期矣。	伏願；力扶道脈，追念賢儒，使得從祀，則足以矜式多士，裨益風化矣。		
15	嗚呼，真儒之作，歷代所罕，況我東方人物眇然必求學，若程朱然後，乃可尊崇，則尊崇之典，何時可舉乎。必求才若程朱，然後乃任輔弼，則輔弼之位，何時可備乎。已歿之賢如光祖者，足以尊崇矣。見存之賢，亦豈無可責任者乎。			
16	當今人望無出李滉之右，未審殿下，以李滉為何如人耶。議者或以滉為可繼程朱之統，或以滉為無致用之才，皆非知滉者也。滉之懇乞致仕也，論者或以為道不行矣，引身而退，或以為與當路不協，浩然而歸，此亦皆非知滉者也。	且當今人物，無出李滉之右。滉酷好學問，講明性理。		

書名 段落	休庵先生實記	成渾撰 行狀	朝鮮王朝實錄	備考
17	<p>愚臣妄料滉之學問固精，律身固嚴，而嘗以學者自處，未嘗以知道自許，其懇辭大任者，不過量能度分，安於不求知而已。昔者，孔子使漆彫開仕，對曰，吾斯之未能信，子悅。滉之求退，亦吾斯未信之意也。非以不合於世，悻悻而去也。</p>			
18	<p>滉之自處，誠得其道矣。但以一世觀之，人望所屬，無逾此人，豈可聽其長往乎。賢者去國，士林失望，殿下不欲圖治則已，如欲圖治，非委任李滉，則無以慰士望而收俊才矣。</p>	<p>如欲圖治，非委任斯人則不可。</p>		
19	<p>雖然，致滉之道，不在於下書翩翩，而在於至誠待之信用其言而已。殿下若不奮然振作，剷除舊習，而徒事姑息，玩歲愒日，則雖使孔孟程朱，日侍經幄，必無啓沃之功矣。一李滉其如殿下何哉。苟如是，則寧許退閒，使全其義，可矣。不必召命相續徒爲驛路之弊也。</p>			
20	<p>伏願殿下，先定聖志，深改昨非，然後，以災異切迫國步，綴旒之意，下書咨問，俾盡所蘊，因求應召，期以必用，則滉受國厚恩愛君之誠，倍於他人，想必幡然上來，羽儀王廷矣。</p>	<p>伏願殿下，先定聖志，塗改昨非，下書招迎，至誠待之，言聽計從則幸甚。</p>		

書名 段落	休庵先生實記	成渾撰 行狀	朝鮮王朝實錄	備考
21	如臣者，少既無學，老益衰敗，精神茫昧，耳聾語錯，在臣之義所當還歸桑梓，以全晚節，而貪戀恩寵，強顏負乘，取笑當時，貽譏後世，臣罪大矣。今年昏耗益甚，處事顛倒，決不可久玷名器，而目睹饑饉荐臻邦本，顛蹶危亡之禍，迫在朝夕。故只欲一言而退，庶幾少答聖恩之萬一。	臣不學衰老，當還歸桑梓以全晚節，而目睹饑饉荐臻，邦本顛蹶。故只欲一言而退耳。		
22	伏願殿下，恕其狂僭，傾心下採，而許臣致仕，使不得罪於識者。則公私幸甚。			

이 소장은 1570년(경오) 4월(혹은 5월) 경에 선조가 가뭄이 심하게 들어 정국운영이 어려워지자 조신들에게 직언을 요구하는 교지를 내리자 이에 응답하여 올린 글이다. 율곡 이이의 문집에도 수록되어 있어, 율곡이 대신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록》에는 보이지 않고, 《실기》와 〈행장〉에 수록되어 있는 바, 《실기》는 거의 원본에 가까운 완성성을 보여주는 반면, 〈행장〉은 상당 부분 삭제된 초략본의 형태로 전한다.

그 내용은 ‘편국(便國)과 이민(利民)을 위한 직언(直言)’으로 요약할 수 있다. 휴암이 제시한 가뭄극복을 위한 대책은 다음과 같다.

① 척연(惕然)히 스스로를 반성하고 임금과 신하가 서로 맹세하여 폐습을 통쾌히 씻어 내고 모든 마음을 미루어 물어서 치도(治道)를 강구한다.

② 진상(進上)하는 공물(貢物)을 적당히 감소시키고 모든 종류의 군졸(軍卒)과 노예에게 고락을 균등하게 하고 일족절린(一族切隣)의 폐단을 제거하고 각 고을의 이름 없는 부세(賦稅)를 금하여 진실로 나라를 편하게 하고 백성을 이롭게 한다.

③ 을사(乙巳, 1545), 기유(己酉, 1549)²⁰⁾의 적물한 재산을 모두 환급하게 하며 사림(士林)의 이름으로 죄적에 있는 자는 모두 직첩을 다시 되돌려 준다.

20) 기유사화: 1549년(己酉) 이홍남. 이홍윤 형제의 난언(亂言)을 상주하여 이홍남이 모욕죄로 몰려 아우 이홍윤 등이 능지처참되는 한편 연루된 많은 사람들이 화를 입은 사화이다.

④ 절학(絶學)을 크게 밝힌 공이 정몽주(鄭夢周)·김굉필(金宏弼)보다 월등히 우월한 정암을 문묘에 종사한다.

⑤ 지금의 인물로는 이황(李滉)보다 나은 이가 없으니 글을 내려서 그를 불러 맞이하고 지성(至誠)으로 대접하며 그의 말을 듣고 계획을 좇는다.

대강 다섯 가지 실천사항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퇴계 이황의 인물됨과 학문에 대한 휴암의 진술은 매우 친절하여 우리의 주목을 끈다.

당시 사람들은 퇴계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정주(程朱)의 도통을 계승할 만하다. 치용(致用)하는 재주가 없다. 바른 도가 실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치사(致仕)를 간절히 요구했다, 당로자와 화합하지 못해서 몸을 당겨 호연히 물러났다. 그런데 휴암은 이러한 퇴계관을 수용할 수 없었다. 그는 퇴계를 이렇게 본다. 학문이 굳고 정밀하다. 몸가짐이 단단하고 엄격하다. 학자로는 자처하나 한 번도 도학을 잘 안다고 스스로 허여하지 않았다. 대임(大任)을 간절히 사양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과 분수를 헤아려 남에게 인정받기를 구하지 않음으로써 마음 편히 살려고 하는 데 있을 뿐이다. 《논어》에 “공자가 칠조개에게 벼슬길에 나아가라고 하자, 그가 대답하기를, ‘저는 이 일에 대하여 아직까지 자신감을 가질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 공자께서 기뻐하셨다(子使漆雕開仕, 對曰:吾斯之未能信. 子說).”는 대목이 있다. 퇴계가 간절히 물러나기를 요구한 것은 자기가 맡아야 할 일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 수 없다는 생각에서 그런 것이다. 세상과 화합하지 못해서 발끈 성을 내면서 떠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퇴계가 스스로 처신한 것은 진실로 그 마땅한 도리를 얻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한 시대로 본다면, 사람들의 바람이 모이는 대상으로 퇴계를 넘어서는 이가 없다. 때문에 그가 오랫동안 서울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들어주어서는 안 된다. 퇴계가 서울을 떠나가면 사람들이 실망한다. 선조가 무언가 의미 있는 정치를 도모하고자 한다면 퇴계에게 일을 맡기지 않으면 사람의 바람을 위로하고 준재들을 수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퇴계가 서울을 떠나지 않고 선조의 정사를 보좌하게 할 수 있는가? 임금이 초빙하는 글만 계속 내려 보내면 가능할까? 그것도 필요하지만 지극정성으로 그를 대우하고 그의 말을 듣고 써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선조가 먼저 뜻을 안정시키고 어제의 잘못을 고치고 나서 재난이 절박한 상태에 있고 나라가 매우 위태롭다는 뜻을 담은 글을 보내 자문하면 퇴계가 자신의 축적한 지혜를 다해서 부름에 응할 것이라고 보았다. 필자의 안목으로 볼 때, 휴암의 퇴계관은 매우 합리적이고 실제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선조는 이러한 휴암의 건의를 대부분 수용하였다. 그리하여 을사년과 기유년에 적몰한 재산을 환급해 주고, 죄적에 올라 있는 어진 선비들을 신원(伸冤)하여 서용(敍用)하였다고 한다.

(5) 文廟從祀와 靜菴學의 貢獻: <請靜菴先生從祀文廟疏>

書名 段落	休庵先生實記	成渾撰 行狀	朝鮮王朝實錄	備考
1	“我國從祀之賢, 唯鄭夢周協于士望, 其餘薛聰崔致遠安裕輩, 皆出趙光祖下遠甚, 尙享盛禮, 而以光祖之學之功, 獨無報祀, 臣實痛心.”	“我國從祀之賢, 唯鄭夢周協于士望. 其餘薛聰崔致遠安裕輩, 皆出趙光祖下遠甚, 尙享盛禮, 而以光祖之學之功, 獨無報祀, 臣實痛心.”		<행장> 監司尹根壽以貧窶聞, 特命賜米菽者再, 公分與鄉黨親舊曰, 君賜也, 當與共之. 上章謝恩, 且言;
2	伏望商議大臣, 俾列從祀之典, 則士類觀瞻, 斯文不變矣.”	伏望商議大臣, 俾列從祀之典, 則士類觀瞻, 斯文不變矣.”		

1576년(병자) 경기도 관찰사 윤근수(尹根壽)가 휴암의 가난한 실정을 알고서 이를 선조에게 보고하였다. 그러자 선조는 특명으로 쌀과 콩을 두 차례나 하사했다. 휴암은 이를 받아 임금의 하사품이라 하면서 고향의 친구들에게 나누어 준 바 있다. 그리고서 휴암은 선조의 은혜에 감사하는 상소문을 올렸다.

글에서 휴암은 정암의 문묘종사를 요청했다. 그는 당시에 종사되어 있던 선현 가운데 포은 정몽주를 제외한 나머지 설총이나 최치원, 안유 등은 정암보다 못한 인물로 평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암이 종사되지 못하는 상황은 매우 형평성을 잃은 부당한 사태라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정암을 종향하지 못하겠다는 설총, 최치원, 안유 등의 위패도 끌어내려야 마땅하지 않은가 하는 논리로까지 확산될 기미를 보아고 있다.

(6) 靜菴의 文廟從祀와 書院賜額: <辭右參贊疏>

書名 段落	休庵先生實記	成渾撰 行狀	朝鮮王朝實錄	備考
1	“臣以老退殘齡, 再入脩門, 只爲申請趙光祖從祀, 而竊聞書院賜額, 尙阻俞音, 老臣彷徨悶默而歸. 豈意因緣觀聽, 遂叨峻擢. 由臣妄動, 攬取九卿之位, 國人將謂臣何. 臣雖駑劣, 不欲以晚節餘生自取譏笑.”	“臣以老退殘齡, 再入脩門, 只爲申請趙光祖從祀, 而竊聞書院賜額, 尙阻俞音, 老臣彷徨悶默而歸. 豈意因緣觀聽, 遂贊峻擢. 由臣妄動, 攬取九列之位, 國人將謂臣何. 臣雖駑劣, 不欲以晚節餘生自取譏笑.”		<행장> 八月, 特陞資憲大夫議政府右參贊, 下書徵之. 公上章辭免, 以爲; <행장> 再批不許, 乃入朝又控辭, 上下教曰, 卿在予忝位之初, 彌違弘多, 及今年高, 子用爲嘉, 肆特超授, 勿辭. 遂謝恩.

1578년(무인) 8월, 선조는 특별히 벼슬을 자헌대부(資憲大夫) 의정부 우참찬으로 올리고 글을 내려 휴암을 불렀다. 그때 휴암은 소장을 올려 사양의 뜻을 표했다. 이 글은 《실록》에서는 보이지 않고 《실기》와 〈행장〉에 남아 있는데, 두어 자의 출입이 발견될 뿐 내용은 거의 같다. 원문에서 일부만 추린 초략본으로 전하는 것 같다. 주 내용은 정암 조광조를 문묘에 종사하고 도봉서원에 사액을 내려달라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일찍이 양주목사(楊州牧使)로 있던 남언경(南彦經)이 정암 조광조의 서원을 도봉산(道峯山) 아래에 세우자, 휴암은 스스로 대궐에 나아가 정암의 문묘종사 및 도봉서원의 사액을 요청하려 했다. 마침내 1578년 7월 병을 무릅쓰고 도성에 들어갔다. 그런데, 마침 서원의 유생이 스스로 글을 올려 사액을 요청했으나 선조가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휴암은 선조의 뜻을 돌리기 어려다고 생각하여 즉시 집으로 돌아온 바 있다.²¹⁾ 헛걸음을 했던 휴암은 높아진 벼슬만 받고 정암 추모사업은 뒤로 돌렸다는 세인들의 비웃음이 두려웠다. 요컨대, 자신의 벼슬이 높아지는 것보다 시급한 일은 정암의 문묘종사와 서원사액이라는 관점을 피력하여 선조의 마음을 움직이려 한 것이다. 그러나 선조의 마음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선조는 두 차례나 비답을 내려 휴암의 사양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도 별 수 없었다. 결국 다시 사은숙배의 걸음을 내딛고 말았다.

(7) 東西의 調和와 鎮定, 靜菴의 事績과 功績: <因求言陳時弊兼陳時務疏>

書名 段落	休庵先生實記	成渾撰 行狀	朝鮮王朝實錄	備考
1		“載賜祿米, 聖恩殊絕, 老臣感激思報, 不忍默默, 請先陳 祖宗以來召變之大者, 後及當今致災之由, 又言殿下英明才氣, 首出庶物, 而治效蔑聞, 請陳 殿下受病之根.		<행장> 又因天旱求言, 己卯五月, 疏始上, 首言; <행장> 疏凡數千言, 上優教答之, 令政院謄書一本入內. 《己卯錄續集》, 〈萬曆己卯左參贊白仁傑疏〉를 참조.
2	“臣前侍經席, 老耄昏暗, 不能仰答聖語. 退而聞同時人侍者之言, 聖教有曰, 今時朝廷何如, 此正老臣所欲言者也.	又言 “臣前侍經席, 老耄昏暗, 不能仰答聖語. 退而聞同時人侍者之言, 聖教有曰, 今時朝廷何如, 此正老臣所欲言者也.		

21) 成渾의 〈休菴行狀〉, “先是楊州牧使南彦經, 立文正公書院于道峯山下. 公欲自詣闕申請從祀及賜額, 戊寅七月, 力疾入城, 會書院儒生, 自上章請之不許. 公知天意難回, 卽還家.”

書名 段落	休庵先生實記	成渾撰 行狀	朝鮮王朝實錄	備考
3	<p>臣在草野，竊聞摺紳間有沈義謙金孝元分黨之說，當時大臣與近臣有憂之者，相議作鎮定之計，啓於經席，兩出補外。然猶朝著不靖，浮議雲興，稍涉於義謙儕輩者，則指謂之西，稍涉於孝元儕輩者，則指謂之東，朝士若非特立獨行，庸碌闕茸者，皆入東西指目之中，駁論一人，則衆必譁然曰，某是某黨，故被駁也，薦用一人，則衆必譁然曰，某是某黨，故被薦也，一駁一薦，無不指以爲私情，而臺諫銓曹，無不能措手足焉，爲士類者，雖欲慷慨論劾，而恐上疑其相攻擊也，下疑其斥異己也，相顧憂嘆，莫敢發言，邦本日以困，國脈月以傷，東西二字，是亡國之禍胎也。</p>	<p>臣在草野，竊聞摺紳間有沈義謙金孝元分黨之說。當時大臣與近臣有憂之者，相議作鎮定之計，啓於經席，兩出補外。然猶朝著不靖，浮議雲興，稍涉於義謙儕輩者，則指謂之西，稍涉於孝元儕輩者，則指謂之東，朝士若非特立獨行，庸碌闕茸者，皆入東西指目之中，駁論一人，則衆必譁然曰，某是某黨，故被駁也，薦用一人，則衆必譁然曰，某是某黨，故被薦也，一駁一薦，無不指以爲私情，而臺諫銓曹，無不能措手足焉，爲士類者，雖欲慷慨論劾，而恐上疑其相攻擊也，下疑其斥異己也，相顧憂嘆，莫敢發言，邦本日以困，國脈月以傷，東西二字，是亡國之禍胎也。</p>		
4	<p>嗚呼。士之特立者，世不多見，而庸碌闕茸者，亦不可用，則今日可用之士，皆入東西之目矣。其所謂東者，多指年少新進，而勇於謀國，銳於爲善，誠心方盛，此當扶植裁成，而不可排抑以沮其志也。所謂西者，多指先輩舊臣，而經歷變故，力去權奸，功在士林，此亦眷待刮磨，而不可疏</p>	<p>嗚呼。士之特立者，世不多見，而庸碌闕茸者，亦不可用，則今日可用之士，皆入東西之目矣。其所謂東者，多指年少新進，而勇於謀國，銳於爲善，誠心方盛，此當扶植裁成，而不可排抑以沮其志也。所謂西者，多指先輩舊臣，而經歷變故，力去權奸，功在士林，此亦眷待刮磨，而不可疏</p>		

書名 段落	休庵先生實記	成渾撰 行狀	朝鮮王朝實錄	備考
4	斥以失其心也。以東攻西不可，以西攻東不可，若欲盡斥東西，則是空殿下之朝廷也，必欲調和鎮定，使之同寅協恭者，其君子之訪(論)乎。”	斥以失其心也。以東攻西不可，以西攻東不可。若欲盡斥東西，則是空殿下之朝廷也，必欲調和鎮定，使之同寅協恭者，其君子之論乎。”		
5		又言“成渾李珥爲可用之士。”		
6	“殿下不許趙光祖從祀文廟，臣不敢更瀆聖聽，姑舉光祖之事功，粗陳一二。	又言“殿下不許趙光祖從祀文廟，臣不敢更瀆聖聽，姑舉光祖之事功，粗陳一二。		
7	我國被箕子仁賢之化，而道學無傳，鄭夢周金宏弼，倡之於前，而猶未大著。至光祖，自年十七，奮志絕學，終日肅容，端坐如泥塑人，每至二更末三更初，或假寐，或解衣以寢，至四更，梳頭盥漱，正衣冠，端坐讀書，則以小學大學論語近思錄性理羣書爲先，踐履則以孝悌忠信爲本，終始不怠，如恐不及。	我國被箕子仁賢之化，而道學無傳，鄭夢周金宏弼，倡之於前，而猶未大著。至光祖，自年十七，奮志絕學，終日肅容，端坐如泥塑人，讀書則以大小學論語近思錄爲先，踐履則以孝悌忠信爲本，孜孜不怠，如恐不及。		
8	至庚午，中進士魁，聲名洋溢，人無賢不肖皆曰，東方之賢人也。蓋真積力久之實，充於中溢於外者也。是時，安塘掌銓衡，初授司紙，以通仕路。厥後，中乙亥科。以興起斯文爲己任，以行道濟世爲己責，上格宸衷，下聳儒林，以德化人，幾成至治。	是以，真積力久，充於中而溢於外，聲名洋溢，人皆心悅而誠服。及其立朝事君，以興起斯文爲己任，以行道濟世爲己責，上格宸衷，下聳儒林，以德化人，幾成至治。		

書名 段落	休庵先生實記	成渾撰 行狀	朝鮮王朝實錄	備考
9	士知向方，俗尚孝悌，非惟館學儒生相率禮法，至於市井小民，亦皆慕效，事親以誠，生養死哀，廬墓三年，上下通行，亦皆光祖德化之所及，深山窮谷，亦被化，及小有爭鬪，則必曰，此為不善之時乎。其感人之深為如何哉	士知向方，俗尚孝順，至於市井之民，亦皆慕效，其德化入人之深如此。		
10	但從者如韓忠朴世熹等，亦當時士林之領袖，而方高氣邁剛銳過中，自用直遂，區別舊臣，激怒小人，終成大禍。			
11	惜乎。有賢如光祖，而年少之輩，過激招禍，有如是者，若光祖，處事詳審，惟務中正，年少之輩，欲駁鄭光弼，則力止之，欲行鄉約，行齒坐，則雖不強止，而猶慮生弊，目今矯激之事，以為不可而止之者，固不可枚舉。			
12	光祖之賢人無間然而群凶乃以為曲學詭行之人，至於市井之廬墓者，目為說行而欲訊之，士夫之向方者，指為己卯之餘孽，而攻斥之，故嘉言善行，泯沒而無傳。	光祖既死，羣兇得志，斬伐銷鑠，殆無遺跡，其嘉言善行，沒沒無傳。		
13	拜殿下即位之初，臣啓於經席曰，宮中至今必以光祖為逆賊，殿下曰，光祖之非逆賊宮中已知之矣。然	殿下何自而知之乎。是以，書院賜額，非聞大體，而亦不允許，臣所以只陳事功，不敢以從祀為言也。		

書名 段落	休庵先生實記	成渾撰 行狀	朝鮮王朝實錄	備考
13	殿下無自以詳知，故儒生賜額之疏，雖非關重而亦不見許，此臣之所以不敢以從祀再瀆而陳其事功焉。			
14		又言“飭邊備。修軍政。繕器械。論西北山戎南邊海寇事”甚悉		

1579년(기묘) 5월, 가뭍이 들어 선조가 조신들에게 직언을 구했을 때 올린 상소이다. 《실록》에는 보이지 않고 《실기》와 〈행장〉에 실려 있다. 그런데 두 기록에 상당한 차이가 드러난다. 현재 남아 전하는 8편의 소차류 산문 가운데, 내용이 충실하고 편폭도 가장 긴 상소문이 아닌가 한다. 길이가 모두 수천 자에 달하였으며, 선조가 읽고 나서 예우하는 비답을 내리고 승정원으로 하여금 한 본을 베껴서 대전 안으로 들이게 했다고 한다.²²⁾ 그 정도면 실제 원본내용도 집중해서 읽어 볼 만큼 알찼을 것으로 본다.

휴암이 상소문을 찬술하게 된 기본 동기는, 선조가 쌀을 하사하여 실어다 주도록 한 특별한 성은에 보답하기 위한 것이었다. 실제 원본 상소의 내용은 매우 다채로웠다. 그는 먼저 조종(祖宗) 이래로 변란을 부른 큰 문제에 대해 말한 다음 당시 가뭍과 같은 재앙이 초래된 이유를 말했다. 또 선조가 뛰어난 재기를 지니고서도 별다른 통치효과를 내지 못한 원인을 진단했다. 뿐만 아니라 또 우계 성혼과 율곡 이이를 등용할 만한 인재로 추천하고, 변방의 수비를 삼가고 군정(軍政)을 바로잡으며 병기를 수선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역설했으며, 서북 지방의 산용(山戎)과 남쪽 변방의 해구(海寇)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매우 소상하게 말했다.²³⁾ 다만 현재 전하는 상소요약본에는 위의 내용이 생략되어

22) 成渾의 〈休菴行狀〉, “疏凡數千言, 上優教答之, 令政院謄書一本入內.”

23) 휴암의 국방의식 잘 들어났을 상소문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어 유감이지만,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던 알려진 율곡의 국방의식 동일한 현실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산용은 아마도 서북 변경에서 문제를 지속적으로 일으켰던 여진족 올랑합과 같은 무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1583년 여진추장 尼湯介가 육진을 침범한 바 있다. 재미삼찬은 바로 병조판서로 있던 율곡이 나탕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또한 ‘남쪽 변방의 해구(海寇)의 움직임’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 역시 훗날 발발한 임진왜란을 예감한 선견지명의 발로였지 않았을까 한다.

있어 매우 유감이다.

현재 남아 전하는 상소요약본의 주된 내용은 크게 보아 두 가지이다. 하나는 동인과 서인의 조화와 당쟁의 진정이고, 다른 하나는 정암의 학문사적과 후대에 끼친 공적이다. 휴암은 일찍이 선조가 ‘지금 조정이 어떠한가?’ 하고 물어, 붕당의 진전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고 하면서 자신 역시 그러한 생각에 동의하였다.

휴암이 파악한 당시 동서분당의 실체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다.

조정이 불안하다. 심의겸의 무리에 관계되는 자들을 서인이라 하고 김효원의 무리에 관계되는 자들을 동인이라 한다, 조정의 모든 선비들은 동인이 아니면 서인으로 갈라져 있다. 이러한 분립구도 아래 정치적 사안에 대한 논박이나 벼슬에 대한 천거도 이루어진다. 이처럼 사정의 개입이 현저해지면서, 대간(臺諫)과 전조(銓曹)의 기능이 무력화된다. 그 결과 이러한 사태를 바로잡고자 논쟁을 벌이면 선조는 당파끼리 서로 공격한다고 의심하고 동인과 서인은 자기와 다른 자를 배척한다고 의심할까 염려하여, 서로 돌아보며 걱정하고 한탄할 뿐 감히 발언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나라의 근본인 백성들이 날로 곤궁해지고 국맥(國脈)이 날로 손상된다. 때문에 휴암은 ‘동서’ 두 글자를 나라를 망치는 화근으로 보았다.

그렇다면 과연 동인과 서인의 정치적 성격은 어떠한가? 휴암은 말한다. 동인은 대부분 나이 젊은 신진(新進)들이다. 그들은 국사를 도모함에 용감하고 선(善)을 행하려는 의욕이 강하다. 이처럼 성심(誠心)이 한창 왕성한 이들은 마땅히 붙들어 주고 적절히 성취시켜 주어야지 배척하고 억제하여 그들의 뜻을 저상(沮喪)시켜서는 안 된다. 서인은 선배와 구신(舊臣)들을 가리킨다, 그들은 수많은 변고를 겪으면서 권력을 남용하는 간신들을 힘써 제거하여 사림에 큰 공로가 있다. 이들을 또한 각별히 대접하고 공경히 대하지 멀리하고 배척하여 그들의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 때문에 동인이 서인을 공격하는 것도 옳지 않고 서인이 동인을 공격하는 것도 옳지 않다. 만약 선조가 동인과 서인을 모두 배척하고자 한다면 조정은 텅 비게 될 것이다. 반드시 동인과 서인을 조화시키고 진정시켜 서로 공경하고 합심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휴암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군자의 논의태도라고 보았다.

휴암은 앞서 정암 조광조의 문묘중사를 칭하는 글을 올린 바 있으나 선조는 허락하지 않았다. 이번 상소에서는 전술을 바꾸어 정암의 학문사적과 후대에 끼친 공적에 대해서 진술함으로써 선조를 설득시키려고 했다.

정암은 어떤 인물인가? 휴암은 이렇게 정암의 학문사적에 대해 말했다. 정암이 17세 때부터 학문에 뜻을 독실하게 하여 행동할 때에는 법도에 따르며 하루 종일 엄숙한 자세

로 꿰어앉아 있는 것이 마치 진흙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 같았다. 매양 이경말(二更末) 삼경초(三更初)에 이르면, 옷 입은 채 조금 자기도 하거나 옷을 벗고 자기도 하였고, 사경(四更) 중간에 이르면 소세(梳洗)하고 의관을 정제(整齊)하여 단정히 앉아 글을 읽었다. 《소학》·《대학》·《논어》·《근사록(近思錄)》, 그리고 성리(性理)에 대한 여러 가지 책을 주된 텍스트를 삼고, 효(孝)·제(悌)·충(忠)·신(信)을 실천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 부단히 정진하였다.

이어서 휴암은 정암이 후대에 끼친 공적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1510년(경오) 사마시진사에 장원하여 정암은 ‘동방의 성인’으로 불렸다. 안당(安塘, 1461~1521, 당시 이조판서)의 전형(銓衡;추천)을 받아 음직으로 처음 벼슬길에 나아가 조지서사지(造紙署司紙)가 된 뒤 1515년(을해), 문과에 급제하여 사문을 흥기시키는 것으로써 자기 임무를 삼고, 도를 행하여 세상을 구제하는 것으로써 자기 책무를 삼았다.

정암은 조정에서 5년 동안 관료활동을 통해, 중종과 유림의 마음을 움직였다. 덕으로 북돋우며 정치 교화를 이루었다, 사람마다 향할 곳을 알고 효도와 공경을 숭상하여 관학(館學) 유생이 서로 예법을 좇았다. 뿐만 아니라 시정(市井)의 어리석은 백성들까지도 모두 사모하고 본받아서, 부모를 지성으로 섬기었다. 상하 모두 살아서는 부모를 봉양하고 죽어서는 애통해 하며 3년동안 시묘(侍墓)하는 것을 행했다. 정암의 덕화는 먼 지역 시골에 까지 미쳤다.

그런데 어찌하여 정암의 이상정치는 실패하고 말았을까? 휴암은 이상정치의 실패 원인을 이렇게 진단했다. 정암을 따라 교유하던 한충(韓忠)·박세희(朴世熹) 같은 영수급 사람들이 재기(才氣)가 고매(高邁)하고 강하고 날카로운 것이 중도에 지나쳤다. 자기 생각대로 행하고 곧장 이루려 하여 옛 신하를 구별하고 소인을 격노하게 하여, 마침내 큰 화를 만들었다. 휴암은 어진 정암은 죄가 없고, 연소한 무리들의 과격한 태도가 화를 불렀다고 진단했다. 결과 정암의 덕화로 인해 발생했던 새로운 유교문화가 다시 배척을 받아 퇴장하게 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고 정암의 아름다운 말과 착한 행실도 민멸(泯滅)되어 전하는 것이 없게 되었다.

왜 이렇게 상세히 정암의 사적을 진술했을까? 당시 선조는 정암을 역적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의 업적을 긍정하려는 데는 인색한 태도를 보였다. 유생들이 도봉서원 사액을 청했을 때도 그다지 중대한 일이 아닌데도 허락하지 않았던 선조였다. 휴암은 이러한 선조의 마음을 읽었다. 그래서 우선 정암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전달하여 선조의 이성적 통찰을 유도하고 싶었던 것이다.

(8) 疏章의 代理潤色은 無罪: <因栗谷被劾自明疏略>

書名 段落	休庵先生實記	成渾撰 行狀	朝鮮王朝實錄	備考
1	“李珥果修潤臣疏矣.”		“李珥果修潤臣疏矣.”	<실록> 白仁傑聞之驚愧, 上疏自明曰: <실록> 上始得其實, 答曰: “省卿上疏, 始知首末, 卿宜安心.”
2	竊見; 宋程頤代彭思永撰論濮王典禮疏, 富弼作論永昭陵疏, 代呂公著作應詔疏. 此等事, 先儒亦嘗爲之, 故臣用珥文, 不以爲嫌, 向人無隱, 故傳者皆以珥誘臣上疏.		竊見; 宋程頤代彭思永撰論濮王典禮疏, 富弼作論永昭陵疏, 代呂公著作, 作應詔疏. 此等事, 先儒亦嘗爲之, 故臣用珥文, 不以爲嫌, 向人無隱, 故傳者皆以珥誘臣上疏.	
3	臣雖無狀, 豈敢以非臣本意, 而徒聽人所教, 而爲此疏乎?		臣雖無狀, 豈敢以非臣本意, 而徒聽人所教, 而爲此疏乎?	
4	老臣臨死, 不敢飾詐, 以欺罔殿下矣.”		老臣臨死, 不敢飾詐, 以欺罔殿下矣.”	

이 상소문은 율곡이 대리 소장을 썼다고 탄핵을 받자 해명하기 위해 쓴 글이다. <행장>에는 보이지 않고 《실기》와 《실록》에 나오는데, 그 요약 내용은 글자의 출입도 없이 거의 동일하다. 생략된 시작 부분에서 대작으로 지목된 내용에 대한 상세한 해명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1579년 올린 상소문에 대해 당시 동인들의 격렬한 공격이 있었던 듯하다. 동인측에서는 당초 휴암이 상소문을 초할 때에 율곡에게 자신의 뜻을 서술하여 당시 첨예하게 문제가 되었던 동서 분당과 대립에 대한 조항을 논술하게 하였는데, 나중에 율곡의 글을 가져다가 다시 고치고 나서 이를 주변 인사들에게 다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지만 이어서 율곡의 상소문이 올라오자 그 속에서 동서분당 문제를 논의한 부분이 거의 동일하자, 동인들은 율곡이 소장을 스스로 초한 뒤 실제 작자를 숨기고 휴암을 유인하여 작자로 하여 올림으로써 선조를 속였다고 비난하였다.²⁴⁾ 동서분당을

24) 成渾의 <休菴行狀>, “時論方指西人爲邪, 而公以打破東西, 唯賢是用爲言, 二司交章劾之. 公初草疏時, 使李珥述己意, 論時事一款, 其後, 將珥文更加刪改, 且與賓客談說不隱, 由是人皆知公與珥相訂也. 及珥疏繼至, 論東西處與公略同, 言者攻珥自草疏, 誘白某匿跡欺君, 詭祕不直, 將置罪網.”

논한 대목이란 “동인으로서 서인을 공격하는 것도 옳지 않고 서인으로서 동인을 공격하는 것도 옳지 않으며, 만약 동인과 서인을 모두 배척하고자 한다면 이는 전하의 조정을 텅 비게 하는 짓입니다. 반드시 조화시키고 진정시켜 서로 공경하고 합심하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니, 이렇게 하는 것이 군자의 의논일 것입니다.”라는 구절을 두고 한 말로 보인다.

여기에 대해 휴암은 선조와 동인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의 상소문을 작성했다. 휴암은 솔직담백한 성격 그대로 숨김없이 자기가 작문능력이 율곡보다 못하므로 그에게 자신의 생각을 알려주어 글을 윤색하게 했다고 고백했다. 그렇지만 그러한 행위가 큰 허물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과거 선현들의 많은 사례가 이를 증명해 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행위가 떳떳하기에 다른 주변 인사들에게 공개해도 전혀 부끄럽지 않았다. 휴암은 평생 정직, 즉 직도(直道)를 생명으로 알고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자신을 군왕을 속인 인간으로 매도하는 동인들에게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다만 휴암의 입장을 수용하는 입장에 서면, 글의 중심사상을 제공한 사람이 진정한 작자이지 글을 읽고 꾸민 사람이 작자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이 대필문제는 주제의 독창성 및 한문수사(漢文修辭)와 관련한 것으로 가벼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선조는 휴암의 솔직한 해명을 듣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오히려 대필사건으로 인해 마음이 상했을 휴암을 위로해 주었다고 한다. 선조의 분명한 입장표명이 있는 뒤에는 더 이상 대필문제가 쟁론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것 같다.

3. 맺음말

《조선왕조실록》에는 휴암에 대한 기사가 수십 군데에서 확인된다. 그 중 가장 주목되는 기사를 꼽는다면, 휴암의 죽음을 두고 사관이 써내려 간 줄기(卒記)이다. 이 줄기는 《선조수정실록》에 나와 있다. 인조반정 이후 서인이 집권하자 북인정권에 의해 편찬된 《선조실록》에 문제가 많다고 해서 다시 수정을 가해 만든 실록이다. 이 《선조수정실록》은 1657년 완성되었는데, 선조 즉위년부터 29년까지 30권은 택당(澤堂) 이식(李植, 1584~1647)이 편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율곡과 우계가 휴암의 문생이었기에 서인들은 휴암에 대해 매우 우호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한 시선이 잘 반영된 것이 바로 다음에 볼 줄기이다.

백인걸은 고매(高邁)하고 소광(疏曠)하며 강개(慷慨)하여 기절(氣節)이 있었고, 의젓하게 뜻을 온포(溫胞)에 두지 않았다. 처음에 조광조를 스승으로 삼아 종신토록 한결같이 높이 사모하고 심복하였다. 을사년의 난(難) 때부터 만 번 죽을 것을 무릅쓰고 곧은 말로 항거하였는데 다른 사람은 감히 먼저 하지 못하였다. 그의 정직한 소리가 한때에 진동하였고 간사한 무리들도 역시 무섭고 두려워서 감히 그들의 분함을 풀지 못했다. 같은 때에 죄를 얻은 자들이 서로 잇따라 귀양가고 사사(賜死)되었는데 백인걸은 중도에 5년 간 정배되었다가 고향으로 돌아왔다. 여러 해 동안 곤궁하였으나 일찍이 뜻을 꺾지 않았고 만년에 등용되어서는 다시 시대와 뜻이 맞지 않았으나 충성스럽고 의로운 마음은 머리가 희도록 변치 않았다. 일에 따라 헌체(獻替)하되 반드시 그 뜻을 극진히 하였다. 나이 팔십이 넘어서도 오히려 강학에 힘을 써 밤낮으로 연구를 하되 성명(性命)에 관한 책이 아니면 읽지를 않았다.²⁵⁾

이 줄기의 내용은 아마도 우계가 찬술한 <휴암행장>을 참고하여 구성한 듯하다. <휴암행장>에서는 휴암의 인물과 기질에 대해 “공은 인품이 고매하고 소탈하며 드높은 기절(氣節)이 있었다. 어려서부터 도(道)를 사모하고 현자가 되기를 바라, 배불리 먹고 따뜻이 입는 데에 뜻을 두지 않았으며 과거에 급제하고 조정에 올라서는 명예와 의리를 갈고 닦았다. 중간에 폐척(廢斥)을 당하여 곤궁하였으나 좌절하지 않았으며, 늙어서 물러나 시골에 거처하였으나 세상을 경륜하려는 뜻은 일찍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말년에 등용되었다가 비록 다시 시류에 어긋나긴 하였으나 임금에게 충성하고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치려는 생각은 늙어서도 변치 않아 일이 있으면 진언하였는데, 반드시 자신의 뜻을 모두 말한 뒤에야 그만두곤 하였다.”라 하여, 앞서 인용한 《선조수정실록》의 줄기와 흡사한 느낌을 준다.

25) 《宣祖修正實錄》卷13, 宣祖 12년(1579) 9월 1일 갑진, “仁傑高邁踈曠, 慷慨有氣節, 卓然志不在溫胞. 初師趙光祖, 景慕心服, 終身如一. 自乙巳之難, 冒萬死抗危言, 他人莫敢先. 直聲振乎一時, 姦黨亦懾憚, 不敢肆其忿. 同時得罪者, 竄死相望, 而仁傑止於中道定配, 五年而放歸田里. 雖積年困窮, 而未嘗挫志. 晚際登庸, 雖復齟齬, 而忠義之心白首不渝. 因事獻替, 必極其意. 年踰大耋, 猶講學屹屹, 晝思夜索, 非性命之書, 則不讀.”

즐거에서 말한 ‘헌체(獻替)’란 ‘행해야 할 일을 진헌(進獻)하고 행해서는 안 되는 일을 폐지하도록 임금에게 건의한다’는 헌가체부(獻可替否)의 준말이다. 중대한 국사를 조정에서 의논함을 뜻한다. 어떻게 보면 휴암의 관료활동에서 가장 빛나는 대목이 바로 ‘헌체’가 아닐까 한다. 그는 말년에 상소하려 할 때에 이미 병환이 있었으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려를 다해 고심하였다. 그러자 아들과 조카들이 서로 만류하였지만 휴암은 모두 물리치고 마치 물이 만 번 꺾여 돌아도 반드시 동쪽으로 흘러가듯이, 자신의 생각을 진언하고자 했다. 상소문을 올리기 전에는 행여 상소문을 이루지 못할까 염려하여 전전반측(輾轉反側)해서 병이 더 심해졌으며, 상소문을 올린 뒤에는 의기(意氣)가 펴져서 스스로 하고 싶었던 말을 다 쏟아 냈으니 여한이 없다고 여겼다.²⁶⁾

휴암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손에서 놓을 없던 일은 정암 조광조의 문묘종사를 청하는 상소였다. 평소 정암의 훌륭한 인품에 심복하여 아름다운 덕을 흠모하고 찬미하였다. 심중에 있는 것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 입으로 외우며 심취하였다. 이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변함이 없었다. 휴암은 정암의 문묘종사를 청원하는 상소를 계속해서 네 번이나 올렸다. 벼슬에서 물러났다가 다시 조정에 들어가서는 오로지 이것만을 조정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였던 것이다.²⁷⁾ 우리는 본문에서 휴암의 정암을 향한 변치 않는 존모의 념과 집요한 문묘종사 청원활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필자는 휴암의 소차류 정론산문이 보여준 문체 혹은 말하기 방식이 그의 품성에서 유래했다고 생각한다. 그의 좀처럼 꺾기거나 줄어들지 않는 줄기찬 직언의 정신은 고매하고 소광한 품성에서 유래한 것이다. 특히 소광(疏曠)한 품성이나 기질은 심한 경우, 예의나 규범에 구애받지 않고 제 마음대로 자유분방하게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휴암의 정론산문이 보여준 거침없는 필치와 부합되는 면이 있다.

우계 성혼은 기묘사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정암의 훈도 아래 휴암이 학문적으로 대성

26) 成渾의 〈休菴行狀〉, “公爲人高邁疏曠, 慷慨有氣節, 少而慕道希賢, 志不在溫飽. 應舉登朝, 砥礪名義, 中更廢斥, 困而不挫. 既老退居, 經世之志, 未嘗少貶也. 晚際登庸, 雖復齟齬, 而忠君許國之念, 白首不渝. 因事獻言, 必極其意而後已. 未歲上章, 已屬疾而思慮精苦, 不舍晝夜, 子姪交諫, 皆斥退之, 欲言之志, 如水萬折而必東, 不可遏止. 未上之前, 猶恐未成, 轉側增疾, 既上之後, 意氣舒展, 自以爲畢志無恨也.”

27) 成渾의 〈休菴行狀〉, “平生誠服趙靜菴之爲人, 歆讚德美, 言不足以盡其情, 口誦心醉, 沒世無斃, 是以從祀之請, 至於四疏而不已, 既退而復入, 專欲力言于朝.”

했을 것이고 또한 중간에 유배당하지 않아 많은 시간을 백성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었다면 그 위대한 공적을 남길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²⁸⁾ 우계가 말한 기묘사화와 유배는 필시 휴암에게 불우로 작용하지만 필자는 그가 전개한 빛나는 언론활동이야말로 그의 불우를 무색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 만큼 가치 있다고 본다. 여러 가지 제약으로 적절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아 필자로선 불만이다. 다만 이 글이 휴암의 생애와 사상을 조명하는데 있어, 조금이나마 새로운 시각을 마련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면 매우 다행이겠다.

<참고문헌>

- 白東野 編, 《休庵先生實記》1-2(石版本, 4卷 2冊), 1876.년
休庵思想研究論叢編輯委員會, 《休庵 白仁傑의 生涯와 思想》, 1997.
鄭陞連, 〈休庵의 孤高한 人品과 官僚精神〉, 上同書.
方映俊, 〈韓國道學의 脈絡과 休庵思想〉, 上同書.
陳延斌, 〈論休庵先生的道德人格和政治倫理思想〉, 上同書.
徐垌遙, 〈休庵 白仁傑의 道學思想〉. 上同書.
尹綸亨, 〈休庵(白仁傑)의 道學思想〉, 上同書.
趙南國, 〈韓國道學과 休庵思想의 位相〉, 上同書.
崔根德, 〈休庵思想과 儒學史的 位置〉, 上同書.
金鎬城, 〈休庵의 政治思想〉, 上同書.
吳錫源, 〈休庵의 教育思想〉, 上同書.
方映俊, 〈休庵의 社會思想〉, 上同書.
鄭陞連, 〈休庵 白仁傑의 經世思想〉, 上同書.
趙南國, 〈休庵 白仁傑의 生涯와 著述〉, 上同書.
許啓賢, 〈白仁傑(休庵)先生 政治倫理思想初探〉, 上同書.
李昌成, 〈休庵 白仁傑의 倫理思想에 관한 小考〉, 上同書.
李鍾燦, 〈休庵의 詩文學〉, 上同書.
尹綸亨, 〈休庵 白仁傑의 道學思想〉, 退溪學報 第九十二輯, 1996
이해준, 〈坡山書院의 창건·변천과 피주사족 동향〉, 《우계학보》34, 2016.
이정철, 〈선조대 ‘동서분당’ 전개의 초기 양상:이이를 중심으로〉, 《민족문화》43, 2014.

28) 成渾의 〈休庵行狀〉, “嗚呼. 使天相斯文, 土禍不作, 而俾公竭才於師門, 則其學之所就豈止於此, 而強盛之年, 不使坎壈羈窮以老其身, 則其功業之及民, 又豈止於此而已乎.”
